

#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인과적 관계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서요한

군산간호대학교

Yohan Seo(hiyohan@kcn.ac.kr)

## 요약

본 연구는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와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J도 소재 3개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각각의 잠재변인은 직업기초능력,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완전매개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간호전문직관은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중심어 : | 직업기초능력 | 자기효능감 | 간호전문직관 | 자기주도학습능력 | 간호대학생 | 구조방정식모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selection of behavior and sustainability as a variable affecting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med through the recognition of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on the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For this purpose, 396 nursing students from three junior colleges in J province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All of the lat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vocational core competency,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t indexed of causal model among vocational core competency,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self-efficacy had no direct effect on vocational core competency, howev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d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vocational core competency. Third, nursing professionalism had direct effect on vocational core competency and also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d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vocational core competency. Four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d direct effect on vocational core competency.

■ keyword : |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 Self-Efficacy | Nursing Professionalism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임상상황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나 간호교육을 위한 의료환경은 의료소비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의식강화와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임상실습시 직접적인 수행보다는 관찰 또는 단순 술기 중심으로 되어있어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산업현장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 중 직무수행능력에 해당된다. 직업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다[2].

직업능력 관점에서 볼 때 임상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보면, 직업기초능력인 비판적 사고능력에 근거하여 임상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임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3]. 실제 전문대학 간호보건계열에 개설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보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원활용능력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고 있다[4]. 그러나, 간호사들이 처한 의료환경의 변화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등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간호학과에서는 전공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5]. 그리고 간호학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유사 연구로 간호기본능력에 대한 연구, 간호관리사의 공통기본능력에 대한 연구,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 및 임상경력개발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6].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간호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직업기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간호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술기에 기반한 임상수행능력과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임상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자기효능감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설정할 수 있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설정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업능력의 기본요소인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활동,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 및 비정규 프로그램 등 교육서비스 전반에 걸쳐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직업기초능력,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업기초능력은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함양해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임상현장에서 직업 수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기초능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된 10개 영역으로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에 대해 견해, 간호사로서의 활동과정 및 직업에 대한 견해,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간호술기 등 학습을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 1.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은 직종과 직위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핵심역량, 공통능력, 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기초직업능력 등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7][8], 직업기초능력은 예비근로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진단을 통해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9]. 특히 간호사에게는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직업기초능력에 기반을 둔 임상수행능력을 요구받고 있기에 직업기초능력향상은 중요한 학습성과라 하겠다. 간호대학생에게도 급변하는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도구나 정보의 이용,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및 직업의식 등)의 함양을 요구받고 있다. 실제 직업기초능력의 효과는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다[5].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지닌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10].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보면, 박지원 등[11]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7, p<.001$ ). 정선영[1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beta=.42, p<.001$ ). 양혜주[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에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정과 오효숙[1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 $r=.350, p<.001$ )와, 문제해결능력( $r=.351, p<.001$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beta=.128, p<.001$ ), 자기주도적학습태도( $\beta=.323, p<.0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열[6]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인 중 책임감 및 자신감, 팀워크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기반을 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용환[15]이 D광역시 소재 7개 간호대학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간호 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고( $r=.53, p<.001$ ), 자기효능감이 안전간호 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 p=.004$ ). 김미숙[16]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 변인간의 관계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r=.54, p<.01$ )가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p=.019$ ). 김소명과 박상연[1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r=.42, p<.001$ )가 나타났고, 임상수행능력에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6.29, p<.001$ ). 직업기초능력

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1: 자기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의식적 견해[18],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19]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의 가치,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을 직업관과 연결한 것이다[20][2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 필요로 하는 인격, 태도, 자세 등 기본적인 자질을 나타내는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에 대한 사회인식을 측정하는 '사회적 역할',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간호전문성',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행위로서의 '간호계실무역할',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의 주체성, 독특성, 독립성을 나타내는 '간호의 독자성' 영역으로 구분된다[19].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22][23]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만족을 향상함으로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 향상과 미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2].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24], 간호전문직관이 직무만족, 업무수행,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이며,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의 정적 상관관계[25],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26], 간호전문직관과의 사소통능력과 상관관계[27],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28]가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2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22], 임상실습 만족도[28]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29-31].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보면, 최광열[6]의 연구에서 직업관정립과 자기효능감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r=139, p=.044$ ). 강향숙[32]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eta=.34, p<.001$ ). 함연숙과 김희순[2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9, p<.001$ ),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 p=.044$ ).

특히,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보면, 최광열[6]은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지가 직업에 대한 직업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개발하는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직업기초능력의 직업관 정립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팀워크능력, 경력개발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미[33]은 간호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간호전문직관이 셀프리더십과 비판적사고성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직업기초능력에 기반을 둔 임상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2, p=.002$ ).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기초능력의 영향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설정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2: 간호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4. 자기주도학습능력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지식과 간호술기 학습을 추구하는 것은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있어 기본이다.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 변화하는 트렌드, 처치기술, 의료기술 및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주도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에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기확신성과 간호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는 것이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해 유연한 상태로 있으면서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4].

자기 주도성이 강조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셀프리더십 변인과 관련이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자율적인 힘[35]이라 한다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하고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36].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으며[37],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독립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38].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동질성은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주도성(self-direction)과 자기 동기 부여(self-motivation)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3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자기 주도성과 목표를 위한 수행력 요소와 유사한 셀프리더십 변인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 학습에 대한 관리와 통제권을 갖고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은 셀프리더십의 특성[39]이며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보면, 허영미[33]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자기 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셀프리더십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73, p=.008$ ). 김은희[40]의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2, p<.001$ ). 이를 통해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과제 난이도가 높아도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성취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한다[41]. 정선영[1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p<.001$ ).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직업기초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진주와 박민영[4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학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학습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67, p<.001$ ). 서보민[24]의 졸업 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셀프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r=.47, p<.001$ )가 나타났고 직접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정선영[1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 p<.001$ ).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의 영향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을 설정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3: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2016) 따르면 전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수는 51,289명이다.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하는 3개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절대적으로 적합한 표본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델검정에 필요한 임계치는 표본크기 200개이며, 표본의 크기가 400개보다 커지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델적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합한 표본크기로 200~400개가 추천된다[43]. 자료수집은 각 학교별로 교수 1~2인을 섭외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우편 및 온라인 설문도구를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여 편의모집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자료화하기에는 부적절한 4부를 제외한 396명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영역(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과, 영역별 34개 하위영역으로 정의된 직업기초능력을 배광민[44]이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교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전문대학생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광민[44]은 직업기초능력 문항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기업 근로자 30인의 예비조

사를 시행하여 모든 항목에서 .95 이상의 값이 나왔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5이었다. 문항이 전체 척도가 동일한 것을 판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최솟값 .072, 최댓값 .751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가 .90 수준으로 원도구의 문항을 예외 없이 도구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45]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보완한 Oh[46]의 도구를 간호대학생으로 사용한 현용환[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현용환[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8이었다. 문항이 전체 척도가 동일한 것을 판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최솟값 .060, 최댓값 .720로 나타났고, 원도구의 문항을 예외 없이 도구분석에 사용하였다.

### 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19]이 개발하고 한상숙 등[47]이 검증하고, 이송현[20]이 사용하여 측정된 1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송현[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의 값이 나왔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8이었다. 문항이 전체 척도가 동일한 것을 판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최솟값 -.257, 최댓값 .806로 나타났고, 원도구의 문항을 예외 없이 도구분석에 사용하였다.

### 3.4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이석재 등[48]이 개발한 45문항을 하주영[49]이 사용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를 개발한 이석재 등[4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의 값이 나왔고, 하주영[49]의 연구에서 .91이 나왔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alpha$ =.948이었다. 문항이 전체 척도가 동일한 것을 판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최솟값 -.112, 최댓값 .711로 나타났고 원도구의 문항을 예외 없이 도구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표 1. 연구도구의 신뢰도

Variable		문항수	신뢰도	
자기효능감				.908
간호 전문 직관	전문직 자아개념	6	.824	.868
	사회적 인식	5	.810	
	간호의 전문성	3	.714	
	간호계의 역할	2	.640	
	간호의 독자성	2	.892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학습욕구진단	10	.826	.948
	학습목표설정	5	.854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	.388	
	학습과학	3	.838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	5	.626	
	학습전략의 선택	5	.737	
	학습실행의 지속성	5	.709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5	.744	
자기성찰	5	.795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능력	5	.761	.955
	수리능력	4	.883	
	문제해결능력	2	.797	
	자기개발능력	3	.804	
	자원관리능력	4	.883	
	대인관계능력	5	.857	
	정보능력	2	.831	
	기술능력	3	.865	
	조직이해능력	4	.867	
	직업윤리	2	.827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의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자

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상치 제거는 평균에서 표준편차와의 거리를 절대값 3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의 정규성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관찰변인의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10을 넘을 경우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변량 첨도 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나는 경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chi^2$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팬텀변인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GFI, PGFI, RMSEA, NFI, IFI, CFI, TLI, PRATIO, PNFI, PCFI 등을 활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학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과정, 예견되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료 한정하였다. 피험자 동의를 작성하기 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참여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기밀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설문작성 도중이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정규성 분석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자기효능감은 3.532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은 전문직 자아개념 4.093, 사회적 인식 3.242, 간호의 전문성 3.953, 간호계의 역할 4.006, 간호의 독자성 4.130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의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은 학습욕구진단 3.511, 학습목표설정 3.619,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3.598, 학습과학 3.462,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3.726, 학습전략의 선택 3.626, 학습실행의 지속성 3.631,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3.803, 자기성찰 3.683으로 보통 수준으로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능력 3.635, 수리능력 3.878, 문제해결능력 3.626, 자기개발

능력 3.673, 자원관리능력 3.515, 대인관계능력 3.769, 정보능력 3.572, 기술능력 3.602, 조직이해능력 3.464, 직업윤리 4.157로 직업윤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각각의 관측변인들에 대한 개별 정규성인 일변량 정규성 검토를 통하여 점검한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진행된다[43].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05~1.216,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15~.737로 절대값 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에 대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첨도가 c.r값이 28.222(첨도지수: 104.217)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찰변인 간 상관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1																										
2	.421**	1																									
3	.262**	.393**	1																								
4	.313**	.599**	.462**	1																							
5	.379**	.658**	.474**	.649**	1																						
6	.233**	.214**	-.166**	.202**	.206**	1																					
7	.666**	.423**	.254**	.340**	.414**	.021	1																				
8	.480**	.366**	.328**	.298**	.396**	-.080	.650**	1																			
9	.424**	.332**	.263**	.233**	.323**	-.099*	.567**	.553**	1																		
10	.457**	.321**	.289**	.278**	.279**	-.119*	.634**	.579**	.628**	1																	
11	.516**	.379**	.247**	.292**	.329**	.040	.558**	.620**	.479**	.447**	1																
12	.467**	.434**	.301**	.312**	.400**	-.027	.648**	.652**	.556**	.607**	.569**	1															
13	.684**	.374**	.122*	.297**	.301**	.184**	.550**	.421**	.332**	.340**	.552**	.423**	1														
14	.636**	.432**	.251**	.404**	.456**	.147**	.660**	.532**	.463**	.453**	.560**	.543**	.567**	1													
15	.413**	.413**	.309**	.333**	.432**	-.039	.604**	.613**	.539**	.577**	.508**	.665**	.331**	.563**	1												
16	.413**	.396**	.254**	.299**	.390**	.007	.488**	.415**	.336**	.412**	.384**	.425**	.336**	.355**	.416**	1											
17	.270**	.254**	.215**	.233**	.254**	-.041	.383**	.279**	.267**	.313**	.254**	.363**	.151**	.298**	.350**	.469**	1										
18	.372**	.310**	.184**	.270**	.279**	-.049	.505**	.419**	.391**	.447**	.318**	.473**	.281**	.320**	.435**	.652**	.409**	1									
19	.555**	.429**	.278**	.364**	.381**	-.046	.651**	.582**	.427**	.492**	.509**	.551**	.409**	.541**	.545**	.568**	.439**	.608**	1								
20	.420**	.362**	.306**	.268**	.345**	-.133*	.562**	.572**	.500**	.491**	.476**	.564**	.307**	.446**	.587**	.537**	.441**	.611**	.682**	1							
21	.486**	.497**	.288**	.407**	.432**	-.049	.529**	.449**	.423**	.495**	.467**	.475**	.373**	.442**	.472**	.616**	.385**	.589**	.604**	.577**	1						
22	.313**	.333**	.230**	.277**	.261**	-.067	.423**	.375**	.344**	.414**	.284**	.348**	.243**	.266**	.386**	.454**	.437**	.453**	.448**	.461**	.489**	1					
23	.422**	.418**	.295**	.292**	.337**	-.059	.515**	.433**	.418**	.477**	.371**	.485**	.290**	.360**	.469**	.577**	.441**	.566**	.577**	.646**	.608**	.619**	1				
24	.410**	.366**	.268**	.307**	.325**	-.100*	.484**	.422**	.355**	.462**	.364**	.441**	.279**	.336**	.437**	.520**	.391**	.559**	.578**	.608**	.583**	.471**	.658**	1			
25	.395**	.577**	.198**	.463**	.469**	.219**	.443**	.396**	.337**	.356**	.491**	.443**	.373**	.469**	.421**	.403**	.311**	.369**	.468**	.409**	.516**	.325**	.448**	.402**	1		

주1) \*\* p<.01, \* p<.05

주2) 1: 자기효능감, 2: 전문직자아개념, 3: 사회적인식, 4: 간호의전문성, 5: 간호계의역할, 6: 간호의독자성, 7: 학습욕구진단, 8: 학습목표설정, 9: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0: 학습과학, 11: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2: 학습전략의 선택, 13: 학습실행의 지속성, 14: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15: 자기성찰, 16: 의사소통능력, 17: 수리능력, 18: 문제해결능력, 19: 자기개발능력, 20: 자원관리능력, 21: 대인관계능력, 22: 정보능력, 23: 기술능력, 24: 조직이해능력, 25: 직업윤리

2.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행렬은 [표 2]와 같으며, 관찰변인 간 상관 계수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chi^2$  검증은 사례 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hi^2$  검증은 해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한 적합도 검증에 있어서 절대적합지수로 GFI, PGFI, RMSEA를 활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NFI, IFI, CFI를, 간명적합지수로는 PRATIO, PNFI, PCFI를 활용하였다. 초기모형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공분산을 설정하여  $\chi^2$  값을 낮추어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chi^2$  값은 1047.154 (df=270, p=.000)로 모형이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chi^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51][52]. 모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간명도와 적합도를 높이는 모형수정은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를 활용하였다. 수정지수 활용 결과, e3(사회적인식)과 e6(간호의 독자성) 사이의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 값이 -.203으로 나타났고, e8(학습목표설정)과 e11(학습전략의 선택)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36으로 나타났고, e9(학습을 위한 자원파악)과 e10(학습)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87로 나타났고, e11(기본적 자기관리능력)과 e13(학습실행의 지속성)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50으로 나타났고, e13(학습실행의 지속성)과 e14(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48로 나타났고, e13(학습실행의 지속성)과 e15(자기성찰)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56으로 나타났고, e22(정보능력)과 e23(기술능력)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75로 나타났고, e23(기술능력)과 e24(조직이해능력)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39로 나타났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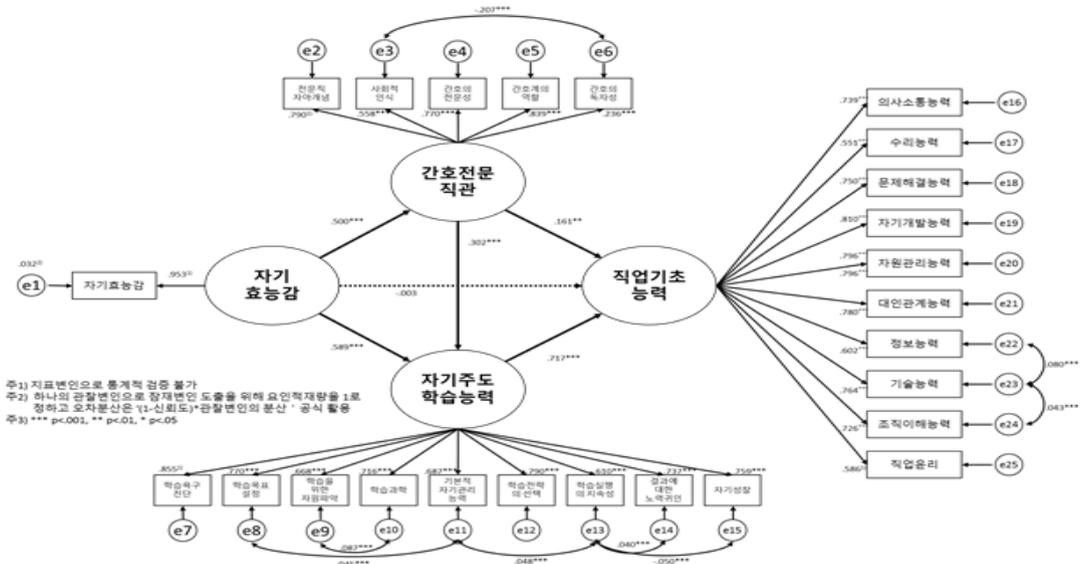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분석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하나의 공분산변인으로 잠재변인 도출을 위해 요인적재량을 1로 정하고 오차분산은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 공식 활용  
 주3) \*\*\* p<.001, \*\* p<.01, \* p<.05

표 3. 모형수정표

대상	M.I.	Par Change
e3 (←) e6	47,233	-.203
e8 (←) e11	10,462	.036
e9 (←) e10	30,964	.087
e11 (←) e13	19,911	.050
e13 (←) e14	20,895	.048
e13 (←) e15	24,980	-.056
e22 (←) e23	30,997	.075
e23 (←) e24	14,406	.039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향상하였다. GFI가 .802에서 .846으로, NFI가 .833에서 .866으로, IFI가 .870에서 .904로, CFI가 .870에서 .904로 상승하였다[표 4]. 따라서, 초기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이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적합도가 판된 수정모형의 경로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초기모형	수정모형	해석
절대 적합지수	$\chi^2$	> .05	1047,154 (df=270, p=.000)	836,970 (df=262, p=.000)	미적용
	GFI	> .90	.802	.846	양호
	PGFI	> .50, .60	.666	.682	적합
	RMSEA	< .10	.085	.075	적합
증분 적합지수	NFI	> .90	.833	.866	양호
	IFI	> .90	.870	.904	적합
	CFI	> .90	.870	.904	적합
	TLI	> .90	.855	.890	양호
간명 적합지수	FRATIO	> .50, .60	.900	.873	적합
	PNFI	> .50, .60	.749	.757	적합
	PCFI	> .50, .60	.783	.789	적합

한편,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인과모형의 경로계수( $\beta$ )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은 .500,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89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직업기초능력’은 .717, ‘간호전문직관 →직업기초능력’은 .161, ‘간호전문직관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02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로계수는  $p < .01$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 →직업기초능력’은 경로계수가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4.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영향관계

각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직업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직업효과(-.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지 않았다.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611)와 총효과(.60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간호전문직관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161),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217), 총효과(.37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한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7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효과분석을 통한 변인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표준화 계수	C.R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기효능감 → 직업기초능력	-.003	-.054	.611**	.608*
자기효능감 → 간호전문직관 → 직업기초능력			.081**	
자기효능감 → 자기주도학습능력 → 직업기초능력			.422**	
자기효능감 → 간호전문직관 → 자기주도학습능력 → 직업기초능력			.108**	
간호전문직관 → 직업기초능력	.161**	3.17	.217*	.378*
간호전문직관 → 자기주도학습능력 → 직업기초능력			.217*	
자기주도학습능력 → 직업기초능력	.717***	8.388	-	.717**

\*\*\* $p < .001$ , \*\* $p < .01$ , \* $p < .05$

## V. 논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수준을 보면, 3.6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광열[6]의 연구에서 7점 척도로 실시한 직업기초능력의 인식수준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3.12, 의사소통능력 3.65, 수리능력 3.43, 정보활용능력 3.61, 조직체계에해능력 3.64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이 본 연구에서 높게 인식되었고, 의사소통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보활용능력, 조직체계에해능력이 낮게 인식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2,34학년 대상 박지원 등[11]의 연구에서 3.51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수준을 보면, 5점 만점 중 3.8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향숙[32]의 연구에서 3.93점 수준보다는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수준을 보면, 5점 만점 중 3.63점으로 나타났다.

### 1.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270~.555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박지원 등[11]의 연구와 양혜주[13]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가  $r=.372$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미정과 오효숙[14]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상관관계는  $r=.539$ ,  $p<.01$ 로 김미숙[16]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광열[6]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r=.139$ ,  $p=.044$ )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자기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한 김미숙[16]과 김소명과 박상연[1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대해서

는 영향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지만 임상수행능력과 유사하다고 가정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증명되지 아니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영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하위요소별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선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있어 다양한 간접적인 영향요인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기효능감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10]이라 한다면,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문직관과 자기주도적으로 믿고 수행하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변인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자기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233~.421로 나타나 직업관정립과 자기효능감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최광열[6], 함연숙과 김화순[2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자기효능감이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향숙[32], 함연숙과 김화순[2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호의 독자성 부분에서 직업윤리와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그외 하위요인간 상관관계가 .184~.577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업무수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서보민[24], 박병준 등[28]의 연구를 지지하고, 간호전문직관이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에 해당하는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박현주[25],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염은이[2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다만,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인 중 간호의 독자성은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요인 중 직업윤리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지닐수록 간호직업에 대해 가치있다고 인식하고 있기에[22] 직업윤리적 측면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어 직업기초능력에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22]를 지지하였고, 간호전문직관이 직업기초능력에 기반을 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33]를 지지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10] 직업에 대한 소명과 양질의 간호업무 수행할 것이라는 신념을 함양할수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에 대해 의식하고 가치관을 의식할 수 있는 전문직관을 함양한다면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강한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전문직관 함양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413~.684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51~.651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학습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양진주와 박민영[42],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에 해당하는 셀프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서보민[2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어 직업기초능력에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간접적 효과를 나타낸 김경혜와 김경덕[41]의 연구를 지지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나타낸 정선영[1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강

조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직무현장에서 올바른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효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강한 학생은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매개효과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호의 독자성 부분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실행의 지속성과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과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그 외 하위요인간 상관관계가 .122~.456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성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김은희[40]의 연구를 지지한다. 간호의 독자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상관관계가 약한 것은 자기주도성과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간호사를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간호의 독자성이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학습실행을 지속하고 결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모습은 독자성이 지닌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간호전문직관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자기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셀프리더십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허영미[3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전문직관이 수립된다면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에 대해 주도적이고 동기가 부여된 모습 속에서 학습이 될 수 있는 환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기초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하여 기대하는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고, 학습자 주도의 학습하고 학습을 위한 동기를 갖는 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실행하여야 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적 활용을 장려하는 가운데 유보분야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의 요소를 이론적 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적용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만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연구목적에 충족하였고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는 연구가설별 채택과 불채택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직업기초능력과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의 성과적 기대치를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업에 대한 전문직관과 직업에 필요한 학습을 주도적이고 동기부여된 상황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에서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전문적 인식과 가치를 함양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직업기초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고,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를 지지하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듯,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학습에 대한 동기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으나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고,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직업기초능력의 하위능력에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을 위한 자기개발 측면과 외부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은 학습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J도 소재 3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

생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며, 간호대학생의 전체 대학생의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체 수준과 간호대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특성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변인으로 활용하였지만, 개인특성 변인, 직업 전문성과 관련된 진로 변인, 학습과 관련된 변인 등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모형에서 초기모형이 수집된 정보를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된 정보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수정모형에서 측정오차 간에 상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모형은 통계적 설명과 함께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간호의 독자성에 대한 부하량이 다른 하위변인의 부하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응답자 간호의 독자성이 다른 변인과 독특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각 변인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의 구성 및 측정문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함남혁, 김재준, 여옥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694-711, 2016.
- [2] 김윤희, *시뮬레이션기반 심폐응급간호교육이 신규간호사의 지식, 임상수행능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7-345, 2011.
- [4] 강경종, 이견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79-113, 2003.
- [5] 운영미, 성경숙, 김은주,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pp.98-108, 2015.
- [6] 최광열,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정도가 직업관정립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7] 윤수근,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통합한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구성 탐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8] 정철영, 나승일, 이명훈, 한홍진, 박은희, 진승환,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통한 직업기초능력의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4호, pp.1-24, 2005.
- [9] 박동열,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제2호, pp.225-245, 2006.
- [10]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191, 1977.
- [11] 박지원, 김춘자, 김용순, 유문숙, 유혜라, 채선미, 안정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교육학회, 제24권, 제3호, pp.223-231, 2012.
- [12]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구조모형,”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5권, 제6호, pp.3333-3352, 2013.
- [13] 양혜주, “전문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사고개발, 제9권, 제3호, pp.103-118, 2013.
- [14]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

- 권, 제6호, pp.328-337, 2012.
- [15] 현용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및 안전간호 수행능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6] 김미숙,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모형*,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7] 김소명, 박상연,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6호, pp.3409-3421, 2014.
- [18] D. Weis and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2, No.2, pp.201-204, 2000.
- [19]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제35권, 제6호, pp.1091-1100, 2005.
- [20] 이송현,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1] G. M. Hampton and D. L. Hampton,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 - 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7, No.9, pp.1042-1053, 2004.
- [22] 함연숙, 김화순, “학제에 따른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63-373, 2012.
- [23] M. J. Schank and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Vol.17, No.5, pp.226-231, 2001.
- [24] 서보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5] 박현주, “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27-236, 2015.
- [26] 김명숙,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9-167, 2011.
- [27] 염은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감정노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320-330, 2017.
- [28]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220-227, 2016.
- [29] 김지현, 권경자, 이승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4호, pp.295-307, 2017.
- [30] 지은주,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3호, pp.1685-1697, 2014.
- [31] 백민자, 김월주, 류현숙,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5권, 제6호, pp.3353-3365, 2013.
- [32] 강향숙,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관련 변수의 경로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33] 허영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34] A. Smedley,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first year bachel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Vol.12, No.4, pp.373-385, 2007.
- [35]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585-600, 1986.

- [36] D. R. Garrison, "Self-directed learnin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48, No.1, pp.18-33, 1997.
- [37] 이소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자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38] S. M. Land and B. A. Greene, "Project-based learning with the World Wide Web: A qualitative study of resource integra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Vol.48, No.1, pp.45-66, 2000.
- [39] R. J. Reichard and S. K. Johnson, "Leader self-development as organizational strateg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22, No.1, pp.33-42, 2011.
- [40] 김은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제4권, 제1호, pp.532-541, 2016.
- [41] 김경혜, 김경덕,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29-236, 2007.
- [42] 양진주, 박미영,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71-277, 2004.
- [43]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응용*, 서울: 한내래출판사, 2012.
- [44] 배광민, *직업기초능력 인식수준 및교육요구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5]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 [46] H. S. Oh,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23, No.4, pp.617-630, 1993.
- [47]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3-79, 2008.
- [48]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생애 능력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의사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3.
- [49] 하주영,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학습태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55-364, 2011.

#### 저 자 소 개

#### 서요한(Yohan Seo)

정희원



- 2000년 ~ 2015년 8월 :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
- 2015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직업능력, 학습조직, 경력개발, HRD